



## 보도자료

- 교통정보기획팀 팀장 이영균  
사무관 김정완
- ☎ 02-2110-8694
- initialx@moct.go.kr
- 3월7일 배포(총 3매)

**3월8일(조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### 열차·비행기·버스 갈아타기 쉬워진다

유비쿼터스 환승교통정보(UTI) 서비스 구축으로 국민편의 도모

열차, 비행기, 버스 및 지하철등 교통수단 및 시설정보를 통합·제공하여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환승 교통 종합정보(UTI : Ubiquitous Transport Information) 제공시스템이 도입된다.

지금까지는 철도공사, 공항공사, 지자체등 각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운영주체별로 개별 시스템을 갖추어 소관분야의 정보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. 그에 따라, 출발부터 도착까지 지하철-기차-버스등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이용자들을 위한 연계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환승시 많은 시행착오와 불편을 겪었다.

이번 사업은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통 정보를 상호연계하고, 이용자에게 예약서비스, 환승이동경로 안내서비스, 출발상황 안내서비스등을 실시간으로 통합제공

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하여, 1단계에서는 각 기관별 교통정보를 통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추석에 맞춰 인터넷등으로 시범제공하고, 2단계('06년~'07년)에서는 서울역, 김포공항등 주요 환승지점에서 가변정보판(VMS), 휴대폰, PDA 등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.

또한, 2010년까지 전국 주요 공항·역사를 중심으로 UTI를 확대구축하고 도로 및 대중교통정보를 통합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소비용,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최적경로서비스(Trip Planner)를 제공할 예정이다.

건설교통부는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이용자가 여행지역의 교통수단 및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환승편의 도모, 대기시간 단축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또한, 언제, 어디서나(Ubiquitous)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및 경로를 한번에(One-Stop)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시스템의 구축으로 장거리 여행자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건설교통부는 『UTI 제공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』의 시공자로 SK C&C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.